

보도시점 2024, 1, 26.(금) 11:00 배포 2024, 1, 25.(목) 18:00

### '강원2024' 경기 보고, 강릉 '로컬100'도 즐기세요

- '로컬100 보러 로컬로' 캠페인 두 번째 편, '로컬100, 강릉을 걷다' 출시
- 1. 26.~27. 유인촌 장관, '강원2024', '로컬100', '강릉 바우길' 연계 현장 찾아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유인촌 장관은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이하 강원2024)' 진종오·이상화 조직위원장, '강원2024' 홍보대사 '클라씨', '로컬100' 참여 신청자\* 등 50여 명과 함께 1월 26일(금)과 27일(토), '로컬100 보러 로컬로(이하 로컬로)' 캠페인 두 번째 편, '로컬100, 강릉을 걷다' 현장을 찾아간다. 특히 유 장관은 '강원2024'와 '로컬100'을 연계해캠페인을 더욱 확산한다.

\* 문체부 공식 인스타그램을 비롯해 등산과 여행 관련 응용프로그램(앱) '트랭글', '페어플레이(pairplay)'를 통해 모집

문체부는 지난해 10월, 지역의 문화매력을 찾아내고, 지역문화의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지역의 문화명소, 콘텐츠, 명인 등을 '로컬100'으로 선정하고 지자체, 민간 기업, 공공 기관 등과 협력해 '로컬로' 캠페인을 진행하며 내외국인의 지역 방문을 확대하고 있다. 유인촌 장관은 지난 12월 '로컬로' 첫 참가자로 '로컬100 기차여행-밀양편'을 통해 현장을 찾아 '밀양아리랑'을 특화콘텐츠로 한 지역문화를 체험하고 내외국인에게 밀양의 문화매력을 홍보한 바 있다.

'로컬로' 두 번째 편, '로컬100, 강릉을 걷다'는 전국의 '등산·숲길 체험인구(이하 트레커)' 약 3천만 명\*이 전국의 명산, 코리아둘레길 등을 걷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지역에 더 오래 머무를 수 있도록 걷기와 '로컬100'체험을 연계한 상품이다. 이를 위해 문체부는 강릉시(시장 김홍규)와지역문화진흥원, 카카오브이엑스(VX)와 협력했다.

\* (출처) 산림청 '2022년도 등산 등 숲길체험 국민의식 실태조사'

#### 1. 26. '강원2024' 자원봉사자 격려와 경기관람으로 '로컬100, 강릉을 걷다' 출발

먼저 유인촌 장관은 1월 26일(금) 오전, '강원2024' 현장에서 자원봉사자들을 격려했다. 자원봉사자들은 추운 날씨 속에서도 대회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해 활동하고 있다. 유 장관은 힘든 여건에도 불구하고 궂은일을 도맡아 솔선수범하고 있는 자원봉사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특히 생일을 맞이한 고령의 자원봉사자들에게 건강을 잘 챙길 것을 당부하며 건강보조식품과 꽃다발을 선물로 전달했다.

오전 11시에는 '로컬로 강릉편' 참가자들과 함께 강릉 스피드스케이팅 경기장에서 '스피드스케이팅 남녀 매스스타트' 경기에 출전한 허석, 신선웅, 정희단, 임리원 등 우리 선수를 응원했다.

#### 1. 26.~27. 특화된 강릉 지역문화와 걷기 여행, 음식 등 체험

'강원2024' 경기관람 이후에는 본격적인 '로컬100, 강릉을 걷다'가 이어진다. 유인촌 장관은 1월 27일(토)까지 강릉의 '로컬100'인 '강릉커피축제'와 '강릉시나미명주골목', '강릉단오제', '코리아둘레길'의 '바우길·해파랑길' 등을 직접 찾아가 강릉 지역문화와 스포츠, 걷기 여행(트레킹), 음식을 체험한다.

한편 이번 강릉편은 '로컬100, 00(지역명)을 걷다'의 시범사업으로, 지역 문화진흥원은 카카오브이엑스(VX), '로컬100' 지자체와 함께 지역별로 공식 상품을 출시해 내외국인 걷기 여행객에게 소개할 계획이다.

유인촌 장관은 "강릉은 천년을 이어 행복을 기원하는 '강릉단오제'로 신명나는 곳이자, 900여 개의 카페, 2천여 명의 바리스타, 안목 커피거리, 대형 커피공장 등 커피를 즐길 수 있는 곳이다. 또한 과거의 '명주동'과 현재의 '강릉'을 모두 천천히(강릉 방언으로 '시나미') 경험할 수 있는 '시나미명주골목'도 있다."라며, "우리는 등산, 스포츠 경기관람, 여행 등여러 가지 이유로 지역을 방문한다. 지역을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로컬100'과 연계해 문화로 지역에 가고, 머물고, 살고 싶게 만들겠다."라고 밝혔다.

문체부는 앞으로도 지역의 문화, 예술, 역사, 관광, 생활양식 등 지역 문화자원에 기반을 둔 '로컬100'을 국내외에 생활공감형·밀착형으로 홍보해 내외국인의 지역 방문 확대를 촉진할 계획이다.

- 붙임 1. '로컬100, 강릉을 걷다' 시범상품 소개
- 2. '로컬100 보러 로컬로' 캠페인 브로셔 따로 붙임 '로컬100' 소개 브로셔

담당 부서	문화예술정책관실	책임자	과장	이선영 (044-203-2611)
	지역문화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김자영 (044-203-2307)
	체육협력관 국제체육과	책임자	과장	명수현 (044-203-3161)
		담당자	사무관	안재민 (044-203-3190)

국민과 함께하는 세계일류 문화매력국가









붙임 1

## '로컬100, 강릉을 걷다' 시범상품 소개





붙임 2

## '로컬100보러 로컬로 캠페인' 브로셔

# 로컬ISE 보러 로컬로! 71요

- 챌린지 기간 2023, 12, 21,~2024, 12, 20, / 1년간
- 참여방법

(방법1) 로컱100 방문지에서 아래 구호가 담긴 영상 게시

구호: 로ૉ 100 보러 로컬로 가요!

(방법2) 로궈100 방문 후 인증샷(사진) 게시

- 필수 해시래그\_ #로72100 #로72로 #문화가있는날
- #해시래그와 함께 캠페인에 통참할 2명을 지목하여주세요!

#두 가지 다 참여할 수 있으며, 추첨을 통해 기념품을 보내드려요!







